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10.14. ~ 10.20.)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왕상 17 - 왕하 1	골 4 - 살후 1
	개인	겔 47 - 단 5	시 103 - 111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불가항력적 은혜		
	<p>요한복음 6장 44절</p> <p>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p>		



시편 103편 / 여호와를 송축하라**개요**

- 1-5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6-18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긍휼
 19-22 온 세상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이 베푸시는 은택, 죄 용서와 병 고침의 은혜를 찬송합니다(1-5절).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므로,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분이십니다(6-11절). 주님의 긍휼하심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와 같아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이 사람을 은혜로 붙드십니다(12-18절). 그 은혜의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송합니다(19-22절).

이 찬송은 주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담긴 긍휼하심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 원수 되었던 우리를 향해 심판을 유보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행하신 일로 인해 은혜를 입으며 찬송의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자녀들의 삶이 주를 힘입어 사는 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10월 15일(화)

왕상18

살전1

겔48

시104

시편 104편 / 온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개요

- 1-4 하나님의 주권
- 5-29 하나님의 창조세계
- 30-35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04편은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창조주이신 주님을 목상하는 시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빛과 하늘, 물과 구름, 그리고 바람과 불꽃을 다 주관하십니다(1-4절). 모든 피조물을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5-9절). 주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각종 들짐승과 들나귀와 공중의 새를 기르십니다(10-13절). 주님이 주시는 식물로 사람은 기쁨을 누립니다(14-18절). 주께서 하신 일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19-24절). 또한 주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십니다(25-29절). 온 땅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30-35절).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경계를 발견하지만, 주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은 주님의 주권과 일하심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온 세상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요 6:35).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생명의 주님, 먹고 마시며 자는 사소한 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줄 아오니, 오늘의 호흡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5편 /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개요**

1-11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12-45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시편 105편은 주께서 맺으신 은혜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찬송합니다. 역사 속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찬양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1-7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8-11절).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셨으며(12-15절), 요셉을 통해 내일을 준비하셨고(16-22절),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고(23-25절),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26-36절), 나오게 하시며 인도하셨고(37-42절), 주님의 법을 따르게 하셨습니다(43-45절).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고 참된 본향을 향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된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나그네에서 주의 백성으로, 소망이 없던 곳에서 소망으로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엡 2:17-19). 주님이 없었다면 생명이 없었고, 부르심이 없었다면 소망도 없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본향 찾는 나그네지만 본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삶이 확실한 소망을 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허락하신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편 106편 /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개요**

1-5 가장 복된 삶

6-46 끊임없는 사람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

47-48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쫓아서 사는 삶 만큼 복된 삶은 없습니다(1-5절).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범죄하며, 주님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6,7절).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인도하셨습니다(8-12절). 하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범죄하였습니다(13-18절). 그들은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다 멸망하였을 것입니다(19-23절). 비느하스의 중재가 없었다면 재앙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24-31절). 그들은 므리바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고, 우상을 섬겼으며,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32-39절).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 나라에 넘겨졌으며 낮아졌습니다(40-43절). 그럼에도 여호와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44-46절). 그 은혜의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찬송하기에 합당합니다(47,48절).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습니다(롬 8:1). 주님의 한 없는 긍휼과 우리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이 세상에 구원이 있음은 주님의 긍휼로 인함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주여, 주의 사랑을 나타내옵소서.

시편 107편 /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깨닫는 지혜**개요**

- 1-9 고통받는 사람을 속량하시는 여호와
 10-41 부르짖는 사람을 건지시는 여호와
 42-43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시편 107편은 방황하며 지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속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1-9절). 죄를 짓는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나,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10-16절). 주님은 사망의 문에 이르러 부르짖는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17-22절). 주님은 폭풍 같은 인생에서 부르짖는 사람들 역시 구원하십니다(23-32절). 주님은 악한 자는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건져 주십니다(33-41절).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를 보고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42,43절).

주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을 인자하신 주님의 공화로 행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차가운 성품으로 행해 졌다면 이미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은 공의로우면서도 얼마나 은혜와 공활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내 생각과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내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그 통치 아래 있는 나의 삶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자하신 마음과 방식으로 나도 나와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편 108,109편 / 주를 향해 부르는 노래**개요**

108:1-12 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109:1-31 궁핍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 108편은 정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향해 높이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송합니다(시 108:1-4).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시 108:5-12).

시편 109편은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들로 인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시 109:1-5). 그들을 향한 심판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며 주께 기도합니다(시 109:6-15). 그가 구하는 기도는 악한 자들이 행한 일들에 대한 마땅한 보응입니다(시 109:16-20). 한편 가난하고 궁핍함으로 기도하는 자신을 선대하여주시길 간구합니다(시 109:21-29).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송할 것입니다(시 109:30,31).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서 변호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요일 2:1,2).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거짓된 고소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견고하며 은혜롭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지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곁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10월 20일(주일)

왕하1

살후1

단5

시110,111

시편 110,111편 / 영원한 여호와를 향한 찬송

개요

110:1-11 나의 주 여호와

111:1-10 진실과 정의의 여호와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자신이 섬기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시 110:1). 그는 자신이 섬기는 주의 다스림을 따라 주의 백성들과 함께 헌신합니다(시 110:2-7).

시편 111편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송합니다(시 111:1-4). 주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먹이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지키십니다(시 111:5-8). 이러한 주님의 진실과 정의를 아는 자야 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시 111:9,10).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이유는 주님이 가진 주권과 그의 진실하고 정의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을 만한 주권자이시기에 그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지혜로 생존을 위해 염려하고 계획하는 일보다 주님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참된 지혜입니다(마 6:31-33). 주님은 우리 필요를 아시며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참된 양식이신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하시며, 그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풍성한 열매를 더하는 순모임

<약 1:19-21, 듣기 말하기 신앙>

1. 듣기와 말하기는 무엇의 문제입니까?(19,20절)

- (1) 기술 (2) 능력 (3) 마음

2. 우리 마음의 방향은 무엇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까?(20절; 마 6:33)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21절)

4.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21절)

5. 우리가 배울 주님의 온유함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사 53:7,12)

6.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 속히 듣고 더디 말하기 위해 지금 내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7.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온전함을 향해 더 가까이 가고, 각 지체에게 서로 힘과 격려가 되며,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제목 나눔

1. 교회를 위한 기도

- 1)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살도록
- 2) 성숙한 신앙을 가진 교회로 자라나도록
- 3)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도록
- 4)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2. 나라를 위한 기도

- 1)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도록
- 2) 사회와 경제가 안정을 찾도록
- 3) 다음 세대 지도자가 준비되도록

3. 나를 위한 기도

- 1)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며
- 2)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